

✠ 교회소식 ✠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스런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으니 은혜와 진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셨고, 능력과 신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중)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삼위일체를 영원무궁토록 찬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부활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탁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의심의 방에 찾아온 평강” / 욥19:23-27; 뱀전1:3-8; 요20:24-29 >

☐ 예배

모이면 예배하고, 흠어지면 전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밖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부활절 성찬식 : 5일(오늘) 1·2부 예배 시 (점심식사 후 고 윤상구 장로님 댁에서 다과회 진행)
- 부활절 세례식 : 강지우 강하열 곽다함 노지현 윤서희 이재원 최서진 (입교) 이광호 (세례)
- 한식 합동추모예배 : 5일(오늘) 오후 12시 15분, 추모의 벽 앞
- 교회학교 에그페인팅: 5일(오늘) 12시, 야외데크 “부활절 계란꾸미기”
- 수요성서특강 제4강 : 8일(수) 오후 7시, 본당

☐ 전체제직회 : 12일(주) 2부 예배 후, 본당

☐ 임시당회 : 5일(오늘) 오후 2시, 회의실

☐ 엘림아카데미 : 8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꽃나무 심기"

☐ 향존직 피택자 파송예배 : 11일(토) 오전 9시 교회 출발

☐ 모임

- “풍성한 삶의 첫걸음” :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구역장모임 : 5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독거노인 반찬배달 : 9일(목) 오전 10시, 천교실

☐ 2026년도 아나바다 선교바자회 : 26일(주)

- 물품수집 : 5일(오늘)~19일(주), 문의 : 유명옥 권사

☐ 소허당 전시 : TEA ARTIST “열정”, 12일(주)까지

☐ 식당봉사

- 5일(주) : 김주현 최호정 / 윤병우 허재우
- 12일(주) : 나미숙 이지영 최은진 / 강승국 김성보

☐ 교우소식

- 감사 : 부활절계란 700개 기증, 김종만 집사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756호
2026. 4. 5.
부활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아침”

요한복음 20:15-16

부활절 첫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침표'요,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질병, 재정적 실패, 관계의 단절 등 내 힘으로는 굴러낼 수 없는 거대한 돌문(무덤) 앞에서 캄캄한 절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죽음과 절망의 마침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은혜의 쉼표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인생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들이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의 부활절 아침으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나의 무덤] 현재 내 삶에서 내 힘으로는 굴러낼 수 없어 '이제 끝이다, 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무거운 돌문(무덤)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2. 캄캄한 절망 속에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다면, 절망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과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부활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눅24:34)

(목사)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다!

(회중)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영광스러운 생명의 주님, 성자 예수님의 권능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옛 질서를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일으키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69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흠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악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60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에스겔 37:12-13(1209) **정학재 피력안수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15:54-55(284) **정학재 피력안수집사**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묵상> “주님께 영광”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20:15-16(183) **정학재 피력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아침』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목회기도

찬 송 162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